



테라 2.0 (루나)란 무엇입니까? | 코인 용어 소개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terra-2-0>

2022년 5월 테라폼 랩스의 스테이블코인 UST와 이와 관련된 루나(LUNA) 붕괴되면서 암호화 시장은 휘청거리고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테라 루나 생태계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테라 2.0 (루나)이 2022년 5월 말에 재발행되었습니다.

테라 2.0 (루나)

대규모 폭락에 이어 테라폼 랩스는 테라 생태계 부활 계획을 결정했으며 이번에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개발자들은 테라 2.0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테라 블록체인을 출시했습니다.

테라2.0 블록체인은 UST 스테이블코인 없이 테라 클래식 유산을 이어갑니다. 루나 커뮤니티, “루나 틱(LunaTics)”의 지원이 계속될 것이며 테라 클래식의 예치 자산 총액(TVL)을 2위까지 끌어올린 세계적 수준의 UX 및 UI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많은 DApp이 기능을 지속시키기 위해 테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루나 2.0은 스테이블코인 붕괴 이후 테라 루나 생태계를 구출하기 위한 새로운 테라2.0 블록체인의 새로운 토큰입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신규 유저 한정 이벤트\(입금 및 거래 시 10,055USDT 보상\) <<<<](#)

테라 2.0의 탄생 배경

테라는 2018년 1월 다니엘 신(Daniel Shin)과 권도형(Do Kwon)이 설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격 안정성과 유용성에 초점을 맞춰 이번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빠른 채택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상한 것입니다. 권도형은 테라의 모회사인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의 CEO 자리를 맡았습니다.

2022년 5월 중순 UST의 1달러 가치가 깨지는 [디페깅이 발생했다](#). 테라 시세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자매 코인인 루나가 급락하고 다시 두 코인의 가격 하락을 촉발하는 악순환인 ‘죽음의 소용돌이 현상’에 빠져든 것이다.

이에 테라 UST와 LUNA의 걷잡을 수 없는 추락했습니다.

테라 클래식이 붕괴된 후 권도형(Do Kwon)은 부활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테라 클래식과 테라의 하드포크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계획은 바이낸스 설립자 창펑 자오(Changpeng Zhao)와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 뿐만 아니라 불만을 품은 UST 투자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제안은 커뮤니티의 투표로 받아들여졌으며 테라 클래식은 2022년 5월 27일 새로운 테라 블록체인으로 하드포크되었습니다.

작동 원리

테라 블록체인은 Tendermint에 기반한 [지분증명](#)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활용해 루나 토큰 보유자들이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토큰을 담보로 스테이킹하도록 하고, 스테이킹된 루나 토큰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게 해 줍니다. 테라는 연간 7% 인플레이션 비율의 보상으로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합니다. 이는 검증자의 이익을 테라 생태계의 장기적인 성공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테라 2.0 알고리즘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 없이 블록체인 ‘테라’를 새로운 체인으로 포크하는 것이다. 포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조정해 새로운 체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만 테라 2.0은 포크(fork)로 이뤄진 게 아닌 완전 별개 체인으로 기존 테라(테라클래식)의 [댁\(Dapp, 탈중앙화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테라 2.0에 이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루나 토큰은 루나 클래식 스테이커, 보유자, 잔여 UST 보유자 및 필수 테라 클래식 앱 개발자에게 에어드롭(무료 증정)됩니다. 테라는 에어드롭 이벤트를 위해 Terra Foundation Labs의 지갑을 제거함으로써 테라를 완전한 커뮤니티 소유 체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신규 유저 한정 이벤트\(입금 및 거래 시 10,055USDT 보상\) <<<<](#)

‘테라 1.0’과 차이점

‘테라 2.0’ 블록체인에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지 않는다. 기존 테라 체인은 ‘테라클래식’, 루나 토큰은 ‘루나클래식’(LUNAC)으로 이름이 바뀐다.

핵심은 ‘보상’이다. 테라폼랩스는 기존 루나와 테라 보유자에게 보유 비율에 따라 루나 2.0를 무상으로 제공(에어드롭)한다. 이때 테라폼랩스는 분배 대상에서 제외해 테라 2.0이 온전히 커뮤니티가 소유한 블록체인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루나 토큰을 언제,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분배 및 매도 가능 시점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지난 7일 테라 코인 가격이 1달러에 연동되지 않고 무너진 ‘디페깅’ 이전에 1만 루나 미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매도 제한(락업)없는 물량 30%를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70%은 2년간 6개월마다 락업이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루나 2.0 에어드롭

지급 대상 LUNA 사용자 수는 테라클래식 체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공격 전후 스냅샷을 기반으로 토큰을 보관한 기간과 보유된 토큰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루나 2.0는 생성 단계에서 10억 개의 토큰을 제공합니다. 분배에는 30%의 커뮤니티 풀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이해 관계자 거버넌스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전에 복원 계획에서 언급했듯이 토큰의 10%는 개발자를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10억의 공급으로 에어드롭 할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격 전 루나 보유자: 35%

공격 후 루나 보유자: 10%

사전 공격 aUST 보유자: 10%

공격 후 UST 보유자: 15%

커뮤니티 풀: 루나 스테이커가 제어하는 30%(개발자의 경우 10% 포함).

출시 시점에 10억 루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 대부분은 새로운 체인이 출시되고 나서 적어도 6개월 후까지 기부가 될 것입니다. 보고된 2억 1천만 개의 코인이 현재 유통되고 있습니다.